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10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일기일회	09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달을 볼까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21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법정 스님의 숨결	34	지금 그 자리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7	과묵한 사람들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1	세월이 만들어 놓은 여백
법정 마음의 온도	42	성찰의 길, 여행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44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308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德祖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글·법 정(法 頂)

지난밤에는 칠월 보름 백중달이 하도 좋아 몇 차례 자다 깨다 했다. 창문으로 스며들어온 달빛이 내 얼굴을 쓰다듬는 바람에 자다 말고 깨어나곤 했었다. 창문을 여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멧방석만한 보름달이 휘영청 떠서 묵묵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슬이 내려앉은 전나무와 해바라기 앞에도 달빛이 반짝거렸다.

칠월 보름은 승가의 여름철 안거가 끝나는 해제일(解制日)이다. 이날 나는 경상남도 통영의 미륵산 미래사에서 중이 되었다. 이날이 오면 출가 수행자의 나이가 하나 더 보태진다. 해놓은 일도 없이 연륜만 쌓여간다는 자책

이 따른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월을 덧없이 흘러 보내고 있다는 말이 더 적절한 듯싶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밤낮없이 흘러가는 저 개울물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으면, 아하 저게 바로 세월이 지나가는 소리로구나 하고 되새기게 된다.

설렁설렁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뒤꼍에서는 푹푹 산자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함석지붕에 떨어지는 그 소리에 처음에는 움찔 놀라곤 했었다. 이 고장에서는 이 열매를 ‘꽤’라고 부르는데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열매의 크기는

보통 자두보다 작지만 맛은 자두와 흡사하다.

제7호 태풍 로빈에 실려 온 폭우로 통나무 다리가 떠내려가고 온 골짜기가 할퀴어지고 나자 심란해서 밖에 나가 며칠 동안 어정거리다 돌아왔다. 그새 산자두가 수북이 떨어져 반쯤 삭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나무에서는 연방 우수수 열매가 떨어졌다. 처음에는 주워 먹다가 이내 물려서 성한 것만을 골라 두었는데 그야말로 처치 곤란이다. 다른 일로 뒤꼍에 갔다가도 풀숲에 새알처럼 소복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오지다.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무상으로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 봄에는 꽃과 향기로 우리 눈과 숨길을 맑게 해주고, 가을이면 열매로써 먹을거리를 선물한다. 우리가 자연에게 덕을 입힌 일이 무엇인가. 덕

은 고사하고 허물고 더럽히고 빼앗기만 했을 뿐인데, 그 자연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말없이 나누어주고 있다. 이런 자연 앞에서, 이 영원한 모성(母性)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고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대지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자연의 은혜를 모른 채 파괴만 일삼는다면 인간은 그 어디에도 뿌리 내릴 수 없는 우주의 망나니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계절의 시작이 다 그렇지만, 유달리 가을은 설렘설렘한 그 바람결에서 예감된다. 나는 어제도 몇 차례인지 “가을바람이 불어오네.”라고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도록 큰소리를 질렀다. 가을은 귀가 예민해지는 계절. 맑은 대기 때문에 먼데 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풀벌레 소리며 짐승이 풀숲으로 버석버석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

다. 다람쥐가 뽀르르 달려가는 모습도 그 소리를 통해 헤아릴 수 있다. 지금 막 뒷골에서 노루 우는 소리가 난다. 노루도 가을바람을 타는가.

바깥 마루 들보에 매달아 놓은 쇠막대 풍경(Woodstock Chimes)이 설렁거리는 바람결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락을 보내오고 있다. 처마 끝에 달아 놓은 재래식 우리 풍경 소리는 좀 단조로운데, 일곱 개의 길고 짧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나무로 된 추가 바람결에 흔들려 내는 소리는 아주 음악적이다. 캘리포니아의 산 페드로에 사는 친구가 얼마 전에 보내준 것인데, 이 풍경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명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내가 처음 이 풍경 소리를 들은 것은 태평양 연안 선셋 거리에 있는 ‘요가난다센터’에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법회나 강연이 끝나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나 버린다. 모

임 끝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진이 빠져 피곤하고 따분해진다. 그리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쏟아 버리고 나면 텅 빈 항아리처럼 말할 수 없이 허전하다.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어진다.

몇 해 전 캘리포니아에서 한겨울을 지내는 동안 법회 끝에 혼자이고 싶을 때면 훌쩍 찾아간 곳이 요가난다센터였다. 차량의 통행이 많은 선셋 거리에서 일단 문안으로 들어서면 그곳은 조용하고 그윽한 별천지다. 꽤 넓은 인공호수 둘레로 띄엄띄엄 야자수가 서 있고 화초와 수목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동산.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의자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의자에 좌정하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금세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때 어디선지 아주 감미로운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그

풍경 소리다.

은은히 울리는 이 풍경 소리는 자칫 졸립거나 무료해서 가라앉기 쉬운 명상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소리가 아주 음악적이기 때문에 무심히 귀를 기울이는 일 자체가 즐거운 명상이 된다.

그곳 물레방앗간처럼 생긴 집에서는 아무나 들어가 의자에 앉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은은한 명상음악이 있어 명상의 즐거움을 거들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반인을 위한 이런 명상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름답고 은은한 소리는 명상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 그저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긴장한 채 꽃꽂이 앉아만 있게 되면, 명상 자체가 메마르고 공허해져서 피로가 빨리 오고, 타성적이고 관념적인 나머지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명상은 깨어 있는 존재의 꽃이다. 명상은 어떤 종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자연의 섭리 같지만, 그 안에는 홀로 겪는 명상의 세계가 있어 생명의 신비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조용히 안팎으로 지켜보라. 지켜보이는 일이 곧 명상이다.

명상의 스승은 말한다.

“홀로 명상하라. 모든 것을 일단 놓아 버리라. 이미 있었는지를 기억하려 들지 말라. 굳이 기억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억에 매달리면 다시는 홀로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저 끝없는 고독, 저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토록 순결하고 그토록 새롭

게 명상하라. 그러면 시들지 않는 천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바깥일에만 팔려 자기 자신을 안으로 들여다볼 줄을 모른다. 우리 시대는 나라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온통 경제 타령만 하면서 사람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삶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는 저마다 처지와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 없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건 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가을바람에 곡식과 과수의 열매가 익어가고 또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도 또한 익어가고 떨어질 것이다. 가을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로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권하고 싶다. 가을은 명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다.

관세음觀世音이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 다시 말해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임이다. 바깥 소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와 하나가 되도록 지극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침내 귀가 활짝 열린다. 이를 불교 용어로 이근원통耳根圓通이라고 한다.

송강 정철의 시조에 이런 것이 있다. 이 가을에 내가 가끔 읊고 있다.

물 아래 그림자 지니
다리 위에 중이 간다
저 좋아 게 있거라
너 가는 데 물어보자
막대로 흰구름 가리키며
돌아 아니 보고 가노매라.

아,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1993

• 발췌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달을 볼까

글 • 법 정(法 頂)

뉴욕의 가을이 불러서 또 왔습니다. 세 해째 왔는데, 아침에 세븐레이크(일곱 개 호수) 쪽에 가보니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법정'입니다. 법정 큰스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보시다시피 바깥 마른 중입니다. '큰스님'은 체구가 크고, 모든 것이 커야합니다. 저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이 '법정 큰스님'이 아니라 '법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올 때 문단속 잘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산중에 있다가 시내에 나올 때면 오두막에 쇠를 채웁니다. 쇠를 채울 때마다 영 마음에 걸립니다. 중이 잃어버릴 것이 뭐가 있어서

쇠까지 채워야 하는지, 쇠를 채우고 돌아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입니다.

50여 년 전, 제가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는 절 법당에 쇠를 채우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 방에도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인심이 나빠지고, 도둑이 절에 와서 탕화나 불상을 훔쳐 가는 일이 잦아져서 법당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불일암을 짓고 살 때는 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쇠 채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헤집는 바람에

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만장회도(慢藏誨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단속을 잘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허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면 공연히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단속해야 할 것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아무리 문단속을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문득 일어나는 데서 온갖 시비와 갈등과 생과사가 벌어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평의 땅땀기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하고 말한 날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된다.”

소유 관념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경계하고, 타인을 잠재적인 침입자

로, 도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심이 흉흉한 도시에서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기에 문단속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도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미 대륙 땅을 밟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송광사 분원이 있어서, 일 때문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인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높은 빌딩이나 잘 닦인 도로나 잘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였습니다. 체구가 좋은 한 걸인이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도 제

왕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누더기만을 걸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걸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명예에도, 어디에도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 걸음에 옮긴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잡이든, 혹은 가구든, 명예든, 그만큼 거기에 얽매입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 김해공항 근처에서 중국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상 상태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조종사가 그곳을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일하다가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한 생존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는 사는 일이 너무도 허무하고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하고 함께 기내식을 먹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테러를 당한 뉴욕 무역센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앞에 닥칠

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라는 커다란 행성을 타고 해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60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포함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 있는 이 기체를 생각 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는 한국에서 가장 자연재해가 적고, 태풍 피해가 전혀 없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연재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개울에서는 커다란 바위들이 쓸려 내려가고,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바위들이 굴러 와 있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온전한 다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세기의 종말

이 온 것처럼 매우 끔직한 재해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그쪽으로 가야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방법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며 어쩔 수 없이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개인의 의지가 전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에 다 같이 휘말린 채 소용돌이 속에서 회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이란 우리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가을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찍 가 버린 사람들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아쉽고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한때일 뿐입니다. 그 한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옛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기 또 한 해,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달을 볼까?”

봄에는 꽃이 피고 또 집니다. 한 해 한 해 꽃이 피었다가 또 집니다. 보름마다 둥근달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둥근달을 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행운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합니다. 소비 사회, 써서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선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소비자라는 말에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소비 사회는 늘 새것을 숭배합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물건을 사 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세상에 새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들의 변형일 뿐입니다. 냉장고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탁기가 어떻게 탈바꿈했든, 그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모양만 다르게 해서, 형태만 다르게 해서 새롭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상품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 권력, 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

을 지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우주의 선물인 물질은 넉넉한 마음에 따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덕은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탐욕스런 부자가 있습니다. 탐욕스런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둑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온 김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식 생활 방식이 지금 온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미국식 생활 방식, 소위 미국식 문화를 꿈꿉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5퍼센트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지구 자원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대량생산, 대량폐기의 악순환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생활 방식은 한마디로 배타적인 탐욕,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무역센터 건물 자체가 무슨 허물입니까? 그 건물이 미국 자본주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탑에 불과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시민 대다수는 선량합니다. 인류 사회 복지와 평화를 위해 그 어떤 나라 시민들 보다 앞장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많은 세계적인 양심과 지식들이 있어서 그릇된 세상일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커다란 자랑거리이자 잠

재력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저력은 막강합니다. 세계 어떤 시민도 따라올 수 없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금 세계 공동체의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지뢰금지협약에 서명을 거부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정을 거부한 네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와 함께 미국이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기를 거부한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또한 세계 무기 거래의 70퍼센트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

다. 이것이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것에 가려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을 마구 고갈시킵니다. 지구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 역시 후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대에 와서 지나치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은 이 자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합니까? 그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은 보존이지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어디를 가나 존경스럽고 부러운 것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자연은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세계 도처의 토착문화를 파괴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본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좋은 세상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경제는 이런 시스템의 연장으로서 제국주의적 지배력을 무

역 자유화와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한층 더 강화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WTO를 세계 양심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이 세계 도처에 비난과 분노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복수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겸허하게 이런 세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의 많은 양심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이것이 동양의 지혜입니다. 배부른 돼지에게는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모르

면 고마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돈이나 재물이 인간이 할 일을 대신 할 때, 인간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임을 거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괴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을 꼭 물질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제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 압니다. 자기 분수

를 누릴 줄 압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삶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자유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빈 껍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삶의 기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

니다.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해선 안 됩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엔젤레스 중심가를 걸어가던 그 거지 왕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지 마십시오. 움켜잡기보다는 쓰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먼 길로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뜬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또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그것도 최소한으로 갖고,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결코 낡고 소극적인 생

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뜻을 담고 있는 삶의 철학이자 생태윤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 했는가? 그것들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갖는 생각과 염원은 우주에서 두고두고 진동한다고 합니다. 명상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남을 미워하던 사랑하던, 그 생각은 우주 공간에서 하나의 파동으로 두고두고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한 말이나 생각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가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공간이 되었든 가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처럼 간절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재충전하는 작업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걸프전 때 미국 대통령이 기도를 하고, 아랍 쪽에서도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자기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각자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맞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의 힘이 우리를 삶의 목표로 다가서게 합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원보다는 구체적인 원을 세우십시오. 세운 원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원을 지닌 사람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원의 힘으로 딛고 일어섭니다.

하루라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그 하루를 건너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 늘 새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산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남이란 누구인가? 타인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입니다. 남이란 내 분신입니다. 나와 무연한

타인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이고, 겹겹으로 닫힌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타인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과 닫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짐스럽고 내가 괴로우므로, 훤히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와 있지만 우리가 금생에만 지금처럼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전생부터 이렇게 모였을 것이고, 어떤 계기로 인해 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정작 얼굴의 실체인 자기 내면의 얼굴은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거울에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거죽의 얼굴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의 얼굴

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하고 있는가?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늘 되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늙음과 젊음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다져야 합니다.

어디에도 메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저녁, 월든 호수로 떠납니다.

- 2002년 10월 27일 뉴욕 불광사
초청법회

•발췌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글 • 법 정(法 頂)

가을은 떠돌이의 계절인가. 나뭇잎을 서걱서걱 스치고 지나가는 마른 바람소리를 듣노라면 문득문득 먼 길을 떠나고 싶다. 바람이란 그 바탕이 떠돌이라서 그런지 그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함께 떠돌고 싶어진다.

*

승가에 만약 행각의 기간이 없다면 정착하는 안거의 의미도 없을 것이다. 결제만 있고 해제가 없다면, 모르긴 해도 독신 수행자의 신경질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몸소 바람이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님으로 해서, 뽀뽀하기 쉬운 생활에 리듬과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산문(山門) 안에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큰소리치던 눈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산문 안의 자리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공허한 것인가를 반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변모되어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된다.

*

승가의 행각은 세상 사람들의 여행과는 다른 데가 있다. 볼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고 한다.

*

예전부터 선가禪家에서는 석 달 동안 한군데서 안거하고 나면 그다음 석 달 동안은 행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각은 관광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동流動하면서 교화하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다. 말하자면 덧없는 세상 물정을 알면서 수행하라는 뜻에서다.

행장을 풀고 하룻밤 쉬는 곳은 물론 우리들의 절간. 두어 군데 말고는 다들 낮익은 사원이었다. 해질녘 절 동구길에서 듣는 만종晚鐘 소리와 발을 담고 고 땀을 들이는 차가운 개울물, 객실에 들어 오랜만에 만난 도반과 회포를 풀면서 드는 산다山茶의 향기가 나그네의 피로를 다스려주곤 했었다.

이렇게 지난가을 동으로 서로, 그리고 남으로 발길이 닿는 대로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입산 이후 도정道程의 자취를 되새겨보았었다. 그때마다 지나간 날의 기억들이 저녁 물바람처럼 배어들었다. 더러는 즐겁게 혹은 부끄럽게 자신을 객관화시켜 주었다.

*

우리가 길을 떠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불일도 불일이지만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훨훨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다. 그리고 조금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그 고적을 누리고 싶어서인 것이다. 그런 기회에 사람은 조금씩 때를 벗게 된다.

*

산에서만 살다 보면 이따금 불쑥 바다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능선에 가려 시야가 차단되게 마련인 산중이라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가 보고 싶다. 지난겨울 동해안에서 보내 온 한 장의 엽서를 보고 문득 바다를 찾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받았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안거 기간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날로 바다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물미역을 먹을 때, 나는 해안선에 밀려드는 물결 소리와 갈매기 울음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금기가 뻘 신선한 갯바람도 온몸에 맡곤 했다. 또 안거가 끝나는 그 이튿날 첫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리라고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빗줄이 없는 한겨울 별거벗은 나무숲에 묻혀 있으면 마른 밥만 먹는 것 같아서 뻑뻑한 느낌이 든다.

*

조계산에서 가까운 바다는 이백여 리 밖에 있는 여수. 이름 그대로 물이 맑은 곳이다. 한려수도의 봄바다는 평화롭고 아름답다. 잔잔한 바다에 즐 듯이 떠 있는 예쁜 섬들, 고깃배가 들성들성 물새처럼 한카로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평화롭다. 바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호수 같다. 여수에서 충무로 가는 뱃길. 모처럼의 바다를, 객실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어 줄곧 갑판 위에 나와 산에 갇혔던 눈길을 씻었다. 숲에 절은 숨결을 바닷바람으로 실컷 환기하였다.

*

내 기억의 창고에는 몇 장의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간직되어 있다. 1950년대 초, 흑산 홍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 몇 여름을 잇따라 흑산과 홍도에서 지낸 적이 있다. 홍도에 가본 사람이면 알고 있겠지만, 좌우로는 산을 이루고 앞뒤로는 망망한 바다로 둘러싸인 대목(竹項)의 낮은 언덕이 있다. 지금은 그 언덕 위에 집이 들어섰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30년 전에는 갯잔디만 깔려 있는 빈 언덕이었다. 향시 바닷바람이 횡횡 넘나들던 그런 언덕이었다. 그 언덕에 앉아 수평선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것 같았다. 해가 넘어간 후의 하늘과 바다에 펼쳐지는 굴빛과 보리와 자주와 잿빛 등 무궁무진한 빛의 조화(造化)를 지켜 보면서 우리들은 번번이 병어리가 되곤 했다.

*

사라봉(沙羅峰)의 낙조를 언제부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 놓치고 말았었다. 그날은 모처럼 맑게 갠 날이라 낙조를 보기로 했다. 해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올라간 보람이 있어 바야흐로 붉은 해가 아득한 수평선 위에 걸려 있었다. 사라봉의 망양정(望洋亭)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제주에 간 나그네로는 한번 보아둘 만한 장관이다. 육지에서는 바다로 지는 해를 보기 어렵고, 해가 바다에 잠긴 뒤 그 노을의 조화는 아무데서나 볼 수 없다. 시선을 돌려 노을에 비친 한라산과 중산간(中山間) 지대의 광활한 구릉도 볼 만하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알짜로 살고 있다.

*

한번은 김치를 가지러 큰절에 내려갔다가 저녁 공양을 하고 수선사(修禪寺)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려던 참이었다. 때마침 모후산(母后山)에 저녁 노을이 물든 걸 보면서 이것이 오늘 하루의 죽음이구나 싶었다. 아플 것도 슬플 것도 없는 담담한 죽음.

*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개인의 신체적인 장애나 특수 사정으로 문밖에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대개의 경우 여행이란 우리들을 설레게 할 만큼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호주머니 실력이나 생활의 밥줄 때문에 선뜻 못 떠나고 있을 뿐이지 그토록 흥가분하고 마냥 설레는 나그네길을 누가 마다할 것인가. 허구한 날 되풀이되는 따분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다. 봄날의 노고지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휘파람이 새어 나온다

*

훽훽 떨치고 나그네길에 오르면 유행가의 가사를 들출 것도 없이 인생이 무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끌고 아득한 지평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나날의 내 자신을 이만치서 바라볼 수 있다. 구름을 사랑하던 해세를, 별을 기리던 생 텍쥐페리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낯선 고장을 해매노라면 더러는 옆구리끼로 허허로운 나그네의 우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간다.

*

나그네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지내고 있는지, 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이 단순한 취미일 수만은 없다.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정이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그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난 8월 중순 한 달 가까운 수련회를 끝내고 우리 임원들끼리 쌓인 피로를 씻기 위해 여수에 있는 친지네 집을 찾아갔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배를 하나 빌려 두 시간 가까이 이 섬 저 섬을 끼고 돌면서 오랜만에 바다를 가까이했었다. 맑은 바다의 수평을 대하니 기복과 굴곡이 있는 산에서 다져진 마음이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얼굴이 있다. 산에 갇히면 든든하긴 하지만 막히기 쉽고, 바다에서 놀면 툭 트인 맛은 있지만 무료하거나 자칫 허황해지기 쉽다. 산과 바다가 알맞게 어울릴 때 의지와 감성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

가끔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볼 일이다. 자신의 삶을 마치고 떠나간 후의 그 빈자리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행연습을 통해서 너저분한 일상의 집착에서 얼마쯤은 벗어나게 될 것이다.

*

가을바람이 선들거리면 불쑥불쑥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산거(山居)를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먹이와 틀에 박힌 생활에 더러는 염증이 생기려고 한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다가도 해마다 10월 하순께가 되면 묵은 병이 도지듯 문득 나그네길을 떠나고 싶다.

그날도 점심 공양을 끝내고 세상 소식 좀 듣다가 여느 때처럼 뜰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오동나무와 후박나무에서 마른 바람결에 똑똑 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오고 말았다.

*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진부하고 지루해지게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걸리적거리는 관계의 이웃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떠나올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무게 말고도 공동체의 무게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짐을 지고 있긴 하지만.

*

혼자서 나그네가 되면 가장 투명하고 순수해진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다. 자기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체가 된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이와 같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만 휴식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도 누릴 수 없다. 휴식과 일은 그런 상관관계를 지닌다.

*

마침 볼일도 있어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침 일찍 자갈치시장을 들렀다. 언제부터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들르게 되었다. 생선을 경매하는 이 자갈치시장은 분명히 부산 특유의 분위기이고 명물이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하듯 숫자를 읊고 수화로 말하는 경매 풍경은 단 세상일처럼 느껴진다. 바로 그 곁에는 준비한 생선가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먼 생선이지만, 거기 비릿비릿한 생의 열기 같은 것이 넘쳐 아침 바닷가를 더욱 신선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

어제는 모슬포에서 신창 쪽으로 가는 길목 동일리東日里 바닷가에서 수평선으로 지는 장엄한 일몰을 ‘참배’ 했었다. 굳이 참배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맑고 고요하고 숙연한 침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풀끝에 맺힌 이슬만 하더라도 그렇고, 해가 지는 모습과 저녁노을만 하더

라도 그지없이 신비스럽고 아름답다. 추한 것은 우리들 인간뿐인가 싶으니 자연 앞에 서기가 조금은 미안하다.

한라산 자락마다 억새풀이 허영계 은발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목장에서 양떼들이 혹은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을 때, 험벗고 때묻고 초라한 존재는 갈데없는 우리들 인간이구나 싶었다.

*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선 일상의 따분한 굴레에서 벗어나 낯선 풍경이나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그넷길 위에서, 시들어가는 일상적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려는 그런 소망에서 버르던 끝에 길을 떠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뭇보다도 먼저 마음부터 느긋하게 먹어야 할 것이다.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보고, 이끼 낀 기와지붕 위로 열린 푸른 하늘도 한번쯤 쳐다보고, 산마루에 걸린 구름이며 숲 속에 서린 안개에 눈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 돌담이며 굴뚝이며, 빛이 바랜 단청과 벽화 같은 것에도 눈길을 돌려볼 일이다. 시멘트로 뒤덮인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살 같은 것도 한번쯤 유심히 눈여겨볼 만하고 기와집 추녀 끝의 영원으로 이어진 그 곡선에도 눈길을 보낼 만하지 않은가.

*

불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불상의 온화한 그 미소를 대함으로써 날로 표정을 잃고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얼굴을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저 불상의 미소가 오늘의 우리 얼굴과 어떤 연줄을 가지고 있는지 지나간 세월의 촌수를 한번 따져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구두와 양말을 벗어버리고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가보라. 머리끝까지 전류처럼 흐르는 차고 부드러운 그 흐름을 통해 더덕더덕 끼어 있는 먼지와 번뇌와 망상도 함께 말끔히 씻길 것이다. 그리고 물소리에 귀를 모을 일이다. 그것은 우주의 맥박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이고,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소리 없는 소리로 깨우쳐줄 것이다.

*

모처럼 노자를 써가면서 먼 길을 찾아 나섰으면, 그리고 그곳이 시끄러운 저자가 아니고 고요와 평화가 깃든 산사라면 그 고요와 평화를 마음껏 받아들여 어지러운 생각들을 씻어내야 한다. 조급하고 바쁘게 서둘던 그 동안의 버릇은 잠시 떨쳐버리고, 한때나마 고요와 청정과 평온을 누림으로써 시들어가던 인간의 뜰을 소생시켜야 한다. 자연을 찾아왔으면 그 품에서 쉬면서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찰칵찰칵 사진이나 찍어대고 떠들다 돌아가면 버르고 버르던 끝에 찾아 나선 길이 아깝지 않겠는가.

*

종교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종파에 구애받을 것 없이 법당에 들어가 향이라도 사르며 조용히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헤아려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토담 위에서나 길옆에서 다람쥐를 만나거든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귀여운 재롱을 보고 있으면 문득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할 것이다.

*

대개의 관광객들은 한꺼번에 많이만 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본 것이 없다. 그저 무엇에 쫓기듯 허겁지겁 스쳐 지나갈 뿐이지, 느끼고 생각하고 다질 겨를이 없다. 한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버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아무리 우리가 증산이요, 수출이요, 소득 증대요, 능률의 극대화 등 ‘양’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일단 일상의 굴레를 벗어나왔으면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 나그넷길에서만이라도 온갖 얽힘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야 닳아진 인간의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의 눈과 귀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정적의 뒤편길까지도 느끼고 받아들일 때 본래의 자기 모습에 눈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많은 관광

의 대상을 제쳐두고 굳이 불교의 수도원인 산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차분한 침묵의 관찰이 따라야 한다. 눈 속의 눈으로 보고 귓속의 귀로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새삼스레 구경거리를 찾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관광과 여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관광은 흥청거리는 소비이지만, 여행은 삶의 탐구다. 일상의 굴레에서 훨훨 떨치고 벗어남으로써, 온갖 소유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참 모습 앞에 마주서는 것이다.

둘레의 사물은 곧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내 얼굴과 말씨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다면, 여행은 자기 탐구의 길이다.

*

오늘날 우리들은 자동차와 속도에 길들여지고 시간에 쫓기면서 인간적인 '걸음을 잃어 가고 있다. 걸음은 그 속에 건강과 사색과 즐거움과 눈(안목)을 갖추고 있다. 항공기와 기차와 선박과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오늘날의 여행은 자신의 발로 두벅두벅 걸어다니던 예전의 도보여행과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대하고서도 정작 여행의 알맹이인 자아 발견이나 자기 탐구는 없이, 자랑 거리와 가벼워진 지갑과 청구서

만 가지고 지쳐서 돌아온다.

*

여행은 떠날 때의 그 설레임부터 시작된다.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들를 곳을 헤아린다. 대개의 경우 목적지만을 염두에 두고 그곳만을 향해 허겁지겁 일로 매진하느라고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좋은 여행은 목적지보다도 그 과정과 도중에서 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여행뿐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보다 값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안에서 고마움과 기쁨을 찾아내어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 자리

글 • 변택주

20년 전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산치 탑을 참배하고 나서 아잔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팔에서 밤기차를 타야 하는데, 승차권은 있어도 좌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석입니다. 그다음 날도 좌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겨우 열차에 올랐지만 비좁고 들어설 틈이 없었어요.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다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살피다가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좌우로 화장실 두 개, 소위 인도와 서양식 화장실이 마주하고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그때마다 역겨운 지린내를 맡아야 하고 배설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 구법승들은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 그 험난하고 위험한 열사, 사막 길을 건너왔는데, 그래도 나는 항공기와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먼지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는

데,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나라고 못 할 게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관념 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도 불만도 사라지고 마음이 더 없이 평온해졌습니다.

그토록 혼잡한 열차 안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당시 인도여행 중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서 어떤 성지보다도 평온하고 순수한 의식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아잔타 석굴에서 제일 가까운 6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잘가온 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지극히 평온한 선열禪悅, 선정에 들어 느끼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선정 삼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전날 14시간 반이나 기차를 탔고, 지난밤에도 8시간 반을 그 틈새에서 지냈는데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화장실 앞 틈바구니가 제게는 그 어떤 선원이나 명당보다 고마운 도량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천당으로 변할 수 있고, 천당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2007년 3월 동안저 해제 법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원효元曉 (617~686)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침을 얻은 것과 같다. 법정 스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의식이다.'라고 깨치신 것이다.

“모든 것은 내 관념 때문이다.”라고 정리한 법정 스님은 “견딜 수 있고 없

음이란 우리 마음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느낌도,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모두 한마음에서 나왔다. 이런 두 가지 느낌은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신다.

‘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됐고, 마음 바깥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통찰이 법정 스님 법문이다.

집착이란 자기 마음속에 갇힌다는 말이다. 수많은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스럽고 삶은 시들어간다. 집착을 떨쳐버리고 바깥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고통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다시 삶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지니게 된다.

누군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꿈꾸는 도량은 어디인가?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걸림 없는……
지금 바로 그 자리.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괴팍한 사람들

글 • 고 현

1986년에 출간된 스님의 저서 <물소리 바람소리> 수상집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한 사람들은 대개가 성격이 괴벽스럽다. 홀로 있고자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 대하기를 몹시 싫어한다. 이런 괴물들의 공통점은 먼 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휴가철인 요즈음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내 인내력의 바닥을 자주 들여다본다. 나는 오늘 두 번이나 문전축객(門前逐客)의 결례를 범했다. 이 칼럼의 마감 날이 박두하여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려고 뒤척이는 참인데, 오늘따라 불청객들이 자꾸 밀려드는 바람에 번번이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방 앞에 입선(入禪)패를 내걸고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중략)

자, 이러니 숙제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두 차례나 문전축객을 하고 나니 내 속 뜯은 말할 수 없이 거칠어진 셈이다. 나는 오늘, 남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따랐다.”

오래전에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혼자 피식 웃음이 터졌다. 나 이전에도,

나 이후에도 당신 만나러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쫓아낸 뒤 마음이 편치 않은 괴로움과 미안함을 이 글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어떤 반전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인연은 천만다행이지만 문전축객으로 끝나버린 악연의 뒤끝을 나보다 더 처절하게 경험했던 인연들도 드물 것이다.

그 악연들 거개가 스님의 원대로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책에서 연은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려다 상처받은 열렬한 팬들이 대부분이다.

홀로 사는 스님이 토굴에 말없이 앉아 있어도 눈 푸른 수행의 향기가 천지사방으로 방향^{芳香}하다 보니 물어 물어 찾아온 길손들이 아니었던가. 그들 중 몇몇은 멀리서 어렵게 왔다가 고생한 만큼 적군(?)이 되어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가끔씩 목격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들어 스님을 이렇게 변명해본다.

우리가 흔히 글^文, 환^畵, 창^曲, 극^劇 즉 ‘쟁이’라고 불리는 소위 ‘끼’로 사는 사람들 또한 독거인 못지않게 성격이 괴팍하다고들 한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감하지만 일단 작업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꼭짓점에 필이 꽂히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 작업 중에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면 괴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고지가 되었던, 오선지나 캔버스가 되었던, 자신의 섬세한 감각을 조율하여 타인의 감동으로 연결시켜줘야 하는 것이 예술인들의 타고난 팔자

고 업業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격리시켜 산야에 묻혀버리거나 때론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스님도 독거인에 예술인 기질을 보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출가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내 식대로 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당신 뜻대로 살고 싶어 모진 결심으로 속정俗情마저 버리고 떠나기를 시도하신 스님으로선 더욱 '나 홀로'가 간절하셨을 것이다.

스님은 지난 50년간 30여 권의 저서를 남길 만큼 삶의 대부분을 원고지와 사셨다. 우리가 그를 존경했던 것은 당신이 묻혀 살았던 자연의 순수한 투명성과 승려로서의 반듯함을 바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바름과 옳음'을 '진실과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살아왔던 것이 있다. 스님은 우리의 이웃집 아파트에 사는 인기작가가 아니라 평생을 산속에서 예불과 참선으로 새벽을 시작하는 수행승이었다는 사실이다. 출가 이래 단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꺾어짐이 없이 40여 년을 홀로 자취하며 살았던 독중으로서 준엄한 자기 관리가 몸에 배인 80평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에 유명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감시자와 감동자가 당신의 '나 홀로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작가 이전에 승려로서 냉혹한 자기 절제 속에서 원시적 생활로 살다 보니 초대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방문자에게 결코 호의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 번만 스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觀을 해본다면 바로 이해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나는 흑여 문전박대나 문전축객을 당했던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경험자로서 대신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한국의 CEO가 추천한 가장 신뢰받는 종교계 인물의 설문조사 1, 2위가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두 분이 다 떠나신 2012년, 같은 조사에서도 여전히 두 분은 순위만 바뀌었지 또 1, 2위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을 ‘국민 스승’으로 모시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시선을 안으로 압축하면 법정 스님은 젊은 수좌 시절 선방에서 깨쳤던 불교의 한글화를 위한 문서(文書)포교 최일선에서 일하다 떠나셨다. 그러나 시선을 밖으로 확대하면 ‘무소유와 나눔’의 철학과 실천은 활자화, 설득화, 대중화로 연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따랐다. 그가 남긴 족적 앞에서 살아 있는 우리가 더욱 하심하고 그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스님은 내생에서도 조금은 덜 미안해하실 것이다.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세월이 만들어 놓은 여백

글 • 법 정(法 頂)

카렌다에 박힌 칠월 바다의 그림이 자꾸만 쳐다보이는 그러한 여름날.....
편지 받았다. 안착 여부가 사뭇 궁금했다. 어린애를 보낸 뒤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 이제는 군인이 되어 늙름한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는데,
유니폼을 서로 달리한, 형제의 대화에서, 나는 그 사이의 여백(세월이 만들어
놓은)을 메꾸기에 칠팔 년 전의 모습들을 확대하느라고 사뭇 비약을 했더
니라. 목포, 광주, 우수영 등지로 오늘 사진과 함께 발신하련다.

오는 가을에는 어김없이 목포 지방에를 다녀올 생각이다. 사진은 아래쪽
에 광선이 들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 산사를 다녀 간 기념이니, 그런
대로 지녀 두어라. 무더운 여름철에 늘 건강하여라

1963년 7월 19일, 소소산방(笑笑山房)에서 법정 합장

* 발체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임는섬

성찰의 길, 여행

글 • 김옥림

나그네 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 법정 -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현대소설의 창시자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인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가 한 말로 여행이 주는 가치에 대해 잘 알게 한다.

여행은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은 꿈결처럼 아늑하기도 하고, 두근 두근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는데서 나아가 새로운 것을 성찰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여행이 될 것이다.

삶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하다보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멋과 맛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감춰진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자신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땐 주저 없이 떠나라. 여행은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성장의 길이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글 • 경허 선사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인 것을
저 강을 건너가면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누구나 한번은 저 강을 건너야 한다
나 또한 다를 바 없어
곧 바람 멎고 불 꺼지리라
꿈속의 한평생을 탐하고 성내면서
너니 나니 하고 다투기만 하는가



• 발췌 : 「버리고 떠나기」 강변의 정자에서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주최한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총 125명의 참여와 총 361점의 사진이 출품되었고, 참가자 중에서 입선 20명과 참가기념작 7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출품된 사진 심사는 1차 내부 심사(주제 부합성, 초상권의 적합성, 홍보 활용성)와, 2차 전문가 심사(사진의 작품성, 빛의 변화, 창의성, 작품의 호소력, 순간포착, 시대적 기록성, 조형성, 법정 스님과의 연관성, 사진의 색과 명암 등)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참가자와 출품수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고, 사진의 색과 명암을 인위적으로 보정하여 인쇄 및 디자인의 어려움, 사진의 창의성과 호소력이 부족한 점, 법정 스님의 수행처로서 전달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품된 사진의 우수작 선정, 분회(맑고 향기롭게) 활용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고, 분회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입선작 2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5만원(문자로 발송)과 ‘비구 법정 사진첩’(등기 우편)을 보내드렸고, 참가작 77명에게는 ‘비구 법정 사진첩’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에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소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사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소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5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봉사자와 상의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장암(jamyang) 바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보름 기도	10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0월 3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0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0월 3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0월 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0월 1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 기도

- 일시 : 10월 1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중양절

- 일시 : 10월 2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보존하는 의미로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총 16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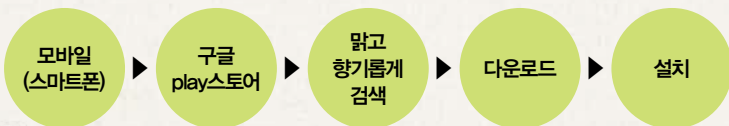
저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회원(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현재후원중인 회원)을 뜻함이 전자책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재등록하시면,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중복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전자책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훈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방법





맑고 향기롭게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